

멜랑흐톤 (Philip Melanchthon)의 창조론

이신열 (고신대학교)

<초록>

본 논문은 멜랑흐톤의 생애와 사상을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의 관점에서 먼저 고찰한 후에 이에 근거하여 그의 창조 이해에 나타난 특징을 고찰한 논문이다. 멜랑흐톤의 창조론은 종교개혁적이며 교부들의 신학에 근거한 전통적 창조론으로서 그 특징은 삼위일체론에 의해서 더욱 분명하게 규명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삼위의 각위가 함께 창조자로서 사역하실 뿐 아니라 또한 개별적으로 창조자이심을 입증한데서 발견된다. 특히 성령이 창조자 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임을 확증함에 있어서 멜랑흐톤의 인문주의적 정신이 강하게 표현되었다. 이러한 창조론에 근거한 멜랑흐톤의 자연의 원인으로서의 하나님이 자연 이해에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의 자연철학의 핵심적 내용에 해당하는 ‘물리적 가르침’이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에 관한 지식이라는 사실이 강조된다. 본 논문에서는 그의 자연 이해를 질서, 유용성, 그리고 섭리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고찰했다.

I. 멜랑흐톤의 생애와 사상: 인문주의자와 종교개혁자

1) 인문주의자

멜랑흐톤 (1497-1560)은 누구인가? 그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Martin Luther, 1483-1546)의 곁에 선 루터란의 대표적 신학자이었다. 루터는 독일을 위시한 유럽 종교개혁의 개척자로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멜랑흐톤이라는 이름은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덜 알려진 인물에 해당된다. 멜랑흐톤은 독일 서남부 지역의 작은 도시 브레텐 (Bretten)에서 1497년 2월 16일에 출생했다. 11살 때 그는 아버지를 여의게 되었고 친척인 요하네스 로이힐린 (Johannes Reuchlin, 1455-1522)의 집에 기거하고 양육되었다. 그는 당대에 널리 이름을 떨친 인문주의자 (humanist)중 한 사람으로서 법률가요 히브리어 학자이었다.¹⁾ 필립은 로이힐린의 권유로 검은 땅을 뜻하는 자신의 성 (family name) Schwarzerdt를 헬라어에 상응하는 멜랑흐톤 (Melanchthon)으로 개명하게 되었는데 이는 당대에 유행했던 인문주의의 영향력을 얼마나 지대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멜랑흐톤은 로이힐린의 영향 아래 인문주의 (humanism)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인문주의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을 가장 탁월하고 본받을만하며 인간적인 삶의 방식을 제공한다고 보고 원래적 의미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고를 가리킨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문주의자들은 그리스와 로마의 문학 및 철학 작품을 원어로 읽고 이해하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서 헬라어와 라틴어 교육을 중요시했다.

멜랑흐톤이 받은 인문주의 교육의 모습은 그가 수학했던 대학들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포르쯔하임 (Pforzheim)의 라틴어학교에서 교육받은 뒤 12살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입학하였는데 이곳에서 2년도 채 되지 않은 1511년 6월 10일에 학사학위를 취득하였

1) 로이힐린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Heinz Scheible, "Reuchlins Einfluss auf Melanthon," *Melanchthon und die Reformation*, Gerhard May & Rolf Decot (eds.) (Mainz: Philips von Zabern, 1996), 71-97; Wilhelm Maurer, *Der junge Melanchthon: 1. Der Humanist* (Göttingen: Vandenhoeck & Rupprecht, 1967), 14-44.

다. 이곳에서 그는 트리비움 (trivium: 문법, 논리학/변증법, 수사학)의 과정을 수료하였게 되었는데 시에도 탁월성을 드러내었다. 그가 창작한 시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 뵘플링 (Jacob Wimpfeling)의 전기에 실리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천문학을 위시한 다양한 학문들을 두루 섭렵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필립은 종교개혁자들인 슈트럼 (Jacob Sturm)과 요하네스 브렌츠 (Johannes Brentz), 그리고 부서 (Martin Bucer)와 친분을 맺게 되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멜랑흐톤은 튀빙겐(Tübingen) 대학에서 1512년 9월 17일부터 수학하기 시작했다. 가브리엘 비엘을 위시한 구학파 (via antiqua)의 전당이었던 하이델베르크와 달리 튀빙겐은 신학파 (via moderna)에 속한 곳으로 여기에서 멜랑흐톤은 유명론자인 오컴 (William of Ockham)의 작품들을 읽게 되었을 뿐 아니라, 버질 (Virgil), 키케로 (Cicero), 헤시오드 (Hesiod), 그리고 갈렌 (Galen)의 작품들을 접하게 되었고 이들을 탐독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곳에서 당대의 탁월한 수학자이자 천문학자로 널리 알려진 슈퇴플러 (Johannes Stöfler, 1452-1531)의 지도를 받게 되었다.²⁾ 1514년 1월 25일에 멜랑흐톤은 석사학위 (the Master of Arts)를 취득했고 그 곳에 남아서 2년 동안 교수 사역에 임하게 되었는데 이는 대학과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렇게 튀빙겐에서 가르치는 동안 멜랑흐톤은 또 다른 종교개혁자인 요하네스 외콜람파디우스 (Johannes Oecolampadius, 1482-1531)를 만나게 되었으며, 두 사람은 함께 헤시오드를 읽고 천문학에 심취했다. 비록 결말에 이르지 못했지만 멜랑흐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집 편집을 감독하는 프로젝트에 도전하기도 하였다. 이는 그의 인문주의적 열정을 잘 드러내는 단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시에 대한 그의 열정은 당대의 대표적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 (Desiderius Erasmus of Rotterdam, 1466-1536)로부터 극찬을 끌어내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이었다.³⁾ 인문주의자로서 그의 명성은 1518년에 그리스어 문법 교재인 *Rudiments of the Greek Language*를 출판함으로써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 이 책은 1518년 첫 출판 이후 무려 100년 동안 40회에 걸쳐 출판될 정도로 전 유럽에 널리 알려진 헬라어 문법서이었다.⁴⁾

이렇게 인문주의자 멜랑흐톤의 명성은 널리 퍼져 나갔고 때 마침 헬라어 및 수사학 교수를 물색 중이었던 비텐베르크 (Wittenberg) 대학이 그를 초빙하게 되었다. 비텐베르크 대학은 선제 후 프레드릭 3세 (Frederik the Wise, 1463-1525)에 의해서 설립된 독일의 신흥 대학이었다. 비텐베르크는 엘베 (Elbe)강에 자리 잡은 작은 도시에 불과했지만 1364년에 어거스틴파 수도원이 이미 설립되었고 15세기 말엽에 이르러서는 시와 고전문학을 위시한 인문주의적 활동을 주관하는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했던 도시이었다.⁵⁾ 이곳에서 인문주의를 꽃피웠던 인물로서 헤르만 본 뎀 부쉬 (Hermann von den Busch), 니콜라우스 마르샤 (Nikolaus Marschalk), 그리고 라베나의 페트루스 (Ravena of Petrus)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인문주의는 중세의 스콜라주의에 의해서 재해석된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논리학에 기반을 둔 인문주의로서 종교개혁 이전의 스콜라 전통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문주의로 평가될 수 있다.⁶⁾ 이런 흐름에 결정적 변화를 주도한 것은 루터이었다. 비록 루터가 추구했던 개신교적 정

2) 슈퇴플러의 수학과 천문학에 대한 가르침은 멜랑흐톤이 인문주의에 대한 지평의 폭을 확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Maurer, *Der junge Melanchthon: 1. Der Humanist*, 129-70.

3) H. Ashley Hall, *Philip Melanchthon and the Cappadocians: A Reception of Greek Patristic Sources in the Sixteenth Century* (Göttingen: Vandenhoeck & Rupprecht, 2014), 78.

4) 마르틴 용, 『멜랑히톤과 그의 시대』, 이미션 옮김 (서울: 흥성사, 2013), 18.

5) Maria Grossmann, *Humanism at Wittenberg, 1485-1517* (Göttingen: Vandenhoeck & Rupprecht, 1984).

6) Joon-Chul Park, *Philip Melanchthon's Reform of German Universities and Its Significance*,

신이 인문주의적 정신과 동일한 것이 아님은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성경의 언어적 이해와 올바른 신학적 해석을 위해서 헬라어와 히브리어 연구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동료들과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되었다.⁷⁾ 이런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선제후는 로이힐린을 헬라어 교수로 초빙하고자 했으나 대신에 멜랑흐톤이 추천되었던 것이다. 비록 루터는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마침내 1518년 8월 25일에 마침내 25세에 불과했던 멜랑흐톤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헬라어 및 수사학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다.

루터를 위시한 많은 비텐베르크 시민들은 처음에 키가 150 센티미터에 불과하고 아주 깡마르고 허약해 보이는 멜랑흐톤을 무시하고 조롱하기 까지 했지만, 이러한 경멸적 태도는 멜랑흐톤의 비텐베르크 도착 나흘만인 8월 29일에 행했던 그의 교수 취임 연설로 인해 변화되기 시작했다. “학문의 진보” (*The Improvement of Studies*)⁸⁾ 라는 제목으로 행해진 그의 교수취임연설은 모든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고전 연구를 독려함과 동시에 대학에서 인문주의적 교육의 수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탁월한 연설이었다. 이 연설을 통해서 멜랑흐톤은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인문주의가 어떻게 중세 스콜라주의에 의해 왜곡 또는 변질되었는가를 고찰하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기초로 한 고전 교육의 중요성을 탁월하게 조망하였을 뿐 아니라 모든 일반 학문의 토대로서 수학의 중요성을 아울러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시학(poetry)과 역사학 (history) 또한 강조되었다. 멜랑흐톤의 인문주의 교육에 대한 이러한 강조에는 이 교육이 올바른 성경 이해와 신학교육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그의 분명한 확신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⁹⁾ 그의 연설을 청취했던 청중들은 큰 감동을 받았고 그에 대한 루터의 걱정은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는 멜랑흐톤을 동료로 삼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고 그의 연설에 크게 환호하였다.¹⁰⁾

이런 방식으로 비텐베르크에서의 인문주의 교육이 멜랑흐톤에 의해서 강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의 인문주의자로서의 위상은 확립되었다. 멜랑흐톤이 대학 교육에 전념하면서 인문주의를 확산시켜 나갔지만, 그의 삶은 종교개혁자 루터와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루터에 의해 시작된 독일의 종교개혁은 멜랑흐톤에 의해 더욱 체계화되었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었다. 이제 인문주의자 멜랑흐톤에게 또 다른 삶, 종교개혁자로서의 삶이 전개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2) 종교개혁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종교개혁은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95개 조항을 학문적 토론을 위해 비텐베르크 교회 (Schlosskirche) 문에 내걸었던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루터와 멜랑

Unpublished Ph. D. Diss. (Ohio State University, 1995), 119-20.

7) Karl Bauer, *Die Wittenberger Universitätstheologie und Anfänge der Deutschen Reformation* (Tübingen: J. B. C. Mohr, 1928), 30-63; Ernst Schwiebert, “New Groups and Ideas at the University of Wittenberg,” *Archiv für Reformationsgeschichte* 49 (1958), 67-72.

8) Philip Melancthon, *Corpus Reformatorum: Philippi Melancthonis opera quae supersunt omnia*, Carolus G. Bretschneider & Heinrich E. Bindseil (eds.) in 28 vols. (Halle: C. A. Schwetschke et Fillium, 1834-1860), vol. 11, 15-25. 이하 CR로 표기함. 이 연설문의 부제는 *De corrigendis adolescentiae studiis*로 인문주의가 청소년들의 교육을 바로 잡는 유일한 수단임을 그가 확신했음을 알 수 있다.

9) CR 11. 22; Wilhelm Schwendenmann, *Reformation und Humanismus: Philip Melancthon und Johannes Calvin*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13), 44.

10) Clyde Leonard Manschreck, *Melancthon: The Quiet Reformer* (New York/Nashville: Abindon, 1958), 22-24; 용, 『멜란히톤과 그의 시대』, 24;

흐톤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동료로서 함께 강의하는 동안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았다. 전자는 후자의 헬라이어 강의에 참석했고 후자는 전자에게서 복음을 배웠다.¹¹⁾ 멜랑흐톤은 고전어를 가르치는 일에만 스스로를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루터와 교제하는 가운데 그의 신학에 깊이 빠져 들어갔고 마침내 루터파에서 종교개혁을 대변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가 될 수 있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문주의자인 그가 루터파의 대표적 신학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인가? 먼저 1519년에 멜랑흐톤은 화체설과 교황 수위설을 포함한 로마 가톨릭의 비성경적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루터의 이신칭의론을 가장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수용하게 되었다.¹²⁾ 이런 변화는 루터와 스콜라 신학자 요하네스 엑 (Johannes Eck, 1486-1543) 사이에 벌어졌던 라이프찌히 논쟁 (1519)을 통해서 더욱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멜랑흐톤은 로마 가톨릭의 사제주의적 체계를 인본주의적이며 비성경적인 것으로 비판했고 이에 도전했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동료 교수 슈타우피츠 (Johan Staupitz, 1460-1524)에게 보낸 편지에서 루터는 멜랑흐톤의 종교개혁적 정신을 다음과 같이 극찬했다.

“당신의 필립의 주장을 보았고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주장은 대담하지만 참으로 진실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놀라움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그는 자신의 주장을 변호했으며 그는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원하신다면, 그는 많은 마틴들을 능가할 것이며 스콜라 신학의 악마에 대항하는 엄청난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이들의 농간과 그리스도가 바위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¹³⁾

이렇게 루터의 종교개혁적 사상을 수용하면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멜랑흐톤을 체계적 종교개혁자의 반열에 올려놓은 책으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 (1536)>보다 15년 앞선 1521년에 처음 발간되었던 <신학총론 (Loci communes)>을 들 수 있다.¹⁴⁾ 이 책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견줄만한 것으로 루터파 신학을 가장 잘 요약한 교리 입문서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이는 그의 로마서 연구의 결과물이었다.¹⁵⁾ 그는 먼저 튀빙겐에서 로마서 연구를 시작했지만 그가 종교개혁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자극한 인물은 다름 아닌 루터이었다. 루터는 1519년 여름부터 멜랑흐톤이 로마서를 강의하도록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 결과 <신학총론>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¹⁶⁾ 루터는 이 책을 성경의 자리에 놓일 만한 불멸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극찬했다.¹⁷⁾ <신학총론>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학교재로 채택되었고 이후 100 여 년 동안 독일의 신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교재로 사용될 정도로 유명세를 떨쳤다. 엑은 1525년에 *Enchiridion locorum communium adversus Lutherannos*를 집필하여 로마 가톨릭적 입장에서 이 책의 비정통성을 비판하였으며 계속해서 1530년에는 404개의 명제를 작성하여 아우구스부르크교회 (the Diet of Augsburg)에 제출하는 등 멜랑흐톤에 대한 반대에 있어서 집요함을 보여주었다.¹⁸⁾ 그는 당대에 중세 신학자들에 의해 주로

11) 용, 『멜란히톤과 그의 시대』, 24-25.

12) Manschreck, *Melanchthon*, 44.

13) *WA Br.*, 1, 492, Manschreck, *Melanchthon*, 51-52에서 재인용.

14) “Loci”의 의미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Quirinus Breen, “The Terms “loci communes” and “loci” in Melanchthon,” *Church History* 16 (1947), 197-209.

15) 그의 <로마서 주석>은 1520년에 출판되었으며 1523년, 1556년에 개정판이 나왔다. *CR* 15, 797-1052.

16) Manschreck, *Melanchthon*, 82-83.

17) *CR*, 10, 303, 305; Manschreck, *Melanchthon*, 88; 용, 『멜란히톤과 그의 시대』, 33.

18) Manschreck, *Melanchthon*, 83-88.

사용되었던 총체적 방식인 *Summen* 대신에 인문주의자들이 내세웠던 변증법과 수사학적 방법론에 근거한 *Loci*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자신의 인문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었다.¹⁹⁾ 모든 교리를 논리적 순서를 따라 설명하는 방식 대신에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죄, 율법, 은혜라는 특정한 주제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던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신학총론>은 1521년에 출판된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1534년, 1543년, 1555, 1559년 등), 증보를 거듭할수록 더욱 경험적 차원이 강조되면서 실천과 경건을 강조하는 신앙입문서로 변모되어 갔다. <신학총론> 초판 서문에 언급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왜곡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차이를 보여주겠다는 멜랑흐톤의 의도에는 사실상 그에게 어느 정도 철학을 배제하는 경향이 이미 잠재해 있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도록 해준다.²⁰⁾ 왜냐하면 그는 철학이 진리보다는 오히려 이에 대한 의구심과 비판만을 발견해 내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²¹⁾

II. 멜랑흐톤의 창조론

1) 창조에 대한 개괄적 이해: <신학총론>을 중심으로

인문주의자이며 종교개혁자인 멜랑흐톤은 창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지니고 있었을까? 여기에서는 그의 대표작 <신학총론>에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 작품에 관해서 언급되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멜랑흐톤의 창조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점증함을 엿볼 수 있다. 1521년 초판에서 그는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의 견해를 따라 인간의 죄악,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로마서의 골격에 기초하여 자신의 사고를 전개하였다. 이와 더불어 신론에 관한 그의 관심이 표현되었는데 이는 주로 하나님의 단일성과 복수성, 즉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로 나타났다. 그리고 간략하게 창조의 신비라는 주제가 짙막하게 언급된다.²²⁾ 또한 토마스 아퀴나스 (Thomas Aquinas)에 의해 제안되었던 능동적 창조 (*activa creatio*)와 수동적 창조 (*passiva creatio*)를 상세히 다루기를 거부한다.²³⁾ 비록 교의학의 주제로서 창조가 언급되었지만 초판에서는 별도의 장(chapter)이 할애되어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아니한다. 창조에 대한 설명은 ‘칭의와 믿음’을 다루는 제 6장에서 간접적으로 설명된다.²⁴⁾ 히브리서 11:1에 나타난 믿음을 설명하면서 멜랑흐톤은 창조를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즉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이 창조의 결과물들을 통해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창조에 대한 믿음은 차가운 이성적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피조물에 그의 능력과 선하심을 쏟아 부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살아 있는 인식을 뜻한다. 멜랑흐톤은 창조에 대한 이런 이해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론으로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다스리신다는 섭리를 논한다. 이러한 믿음은 인간의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19) Breen, “The Terms ”loci communes“ and ”loci“ in Melanchthon,” 205; 용, 『멜랑히톤과 그의 시대』, 34.

20) E. P. Meijering, *Melanchthon and Patristic Thought: The Doctrines of Christ and Grace, the Trinity and the Creation* (Leiden: E. J. Brill, 1983), 6ff.

21) CR 1, 273-75, 266, 301; CR 18, 1131; Manschreck, *Melanchthon*, 83.

22) Philip Melanchthon, *Loci Communes 1521*, Lateinisch-Deutsch, trans. by Horst Georg Pöhlmann (Gütersloh: Gütersloher Verslaghaus, 1997), 20-21.

23) Ibid., 24-25;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I. q. 45, art. 3. E. P. Meijering, *Melanchthon and Patristic Thought: The Doctrines of Christ and Grace, the Trinity and the Creation* (Leiden: E. J. Brill, 1983), 123.

24) Ibid., 230-35.

통해 주어진다. 이는 철학자들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으로서 이들의 주장보다 훨씬 거룩하고 생동감 넘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가 비판하는 철학자들이란 에피쿠로스 (Epicurus)의 후예들로서 이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들의 무신론은 하나님의 창조의 발자국을 연구해야 할 자연철학을 왜곡시켰다고 멜랑흐톤은 주장했다.

창조와 믿음을 상호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은 2판에 해당하는 1535년판에도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초판과 달리 왜 믿음이 창조 이해에 결정적인가를 인간 이성의 한계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성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주 어두움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 첫째 법이 어떻게 자연법에 포함될 수 있는가는 다른 이들로 판단하게 하자. 히브리서 11장은 창조는 믿음으로 알 수 있다고 말한다.”²⁵⁾ 멜랑흐톤은 1523년에 발간되었던 그의 <창세기 해설>에서 이성이 창조가 단지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이미 주장했었다.²⁶⁾ 인간은 “창조와 이 세상의 인도를 다 파악할 수 없다. 그는 사건들이 우연히 발생하고, 기원하고, 사라지고, 또 다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육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질서있고 규제된 움직임은 우리가 보는 자연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믿을 뿐 하나님의 창조의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작고 제한된 피조물들에 관계하신다고 생각하지 아니한다. 각각의 사물은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 움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²⁷⁾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역할도 배제하는 것이 범죄 타락한 인간의 이성 작용이라고 간주되었다. 그는 창조와 연관된 섭리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는데 여기에도 믿음이 핵심으로서 자리잡고 있음이 드러난다. “모든 것이 신적 섭리에 의해서 통제되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대한 그의 돌보심을 부인하는 우리의 이성을 끊어 내는 것이다.”²⁸⁾ 섭리에 대한 멜랑흐톤의 주장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우연의 존재를 인정하고 여기에 중요성을 부여했던 에피쿠로스주적 사고를 부인하는 칼빈의 사고와도 일맥상통한다.²⁹⁾

1543년판 이후에는 창조에 대한 장이 따로 할애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주로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의 자연 이해를 더욱 자세하게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종판인 1555년판에서 멜랑흐톤은 창조를 무로부터의 창조 (creatio ex nihilo)로 파악하였는데 특징은 창조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집약되어 설명된 것이다.³⁰⁾ 초판에서 창조를 사실상 창익과 관련된 믿

25) CR 21, 117f.

26) CR 13, 761-92. 1523년 11월 9일 하그나우 (Hagenau)에서 발간된 <창세기 해설>은 30페이지 약간 넘는 짙막한 분량으로 창세기 50장을 모두 주해한 것이 아니라 1-6장까지만 다루고 있다. 멜랑흐톤은 창조 이해에 있어서 인간 이성의 무효용성을 주장할 뿐 아니라 하늘과 땅의 창조가 신플라톤주의자들이 내세웠던 플라톤적 혼돈 (chaos Platonicum)을 창출해 낸 것이 아니라고 밝힌다. 이들의 주장은 이 혼돈 속에 아직 형성되지 않은 물질이 내재해 있었으며 이는 그 자체로서 다른 구체적 사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뜻하는 범신론적 사고에 해당된다. 이러한 범신론적이며 신플라톤주의적 사고에 대한 대안으로서 멜랑흐톤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그 안에 놓여 있으며, 그를 통해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시사되어야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창조의 목적이 효용성 (utilitas)에 있다는 사실이 특별히 강조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CR 13, 762, 764-69; Maurer, *Der junge Melanchthon*, I, 143.

27) CR 13, 761, 767.

28) CR 13, 762.

29) Philip Melanchthon, *Melanchthons Werke*, II/1, 220-21; *Loci praecipui theologici* (1559). Susan E. Schreiner, *The Theater of His Glory: Nature & the Natural Order in the Thought of John Calvin* (Grand Rapids: Baker, 1991), 119, 158.

30) 필립 멜란히톤, 『신학총론 (1555)』, 이승구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128-29.

음의 차원에서 부차적으로 다루었던 것과 달리 최종판에서 창조에 대한 6가지 명제가 주어진 것이 특이하다.³¹⁾ 처음 세 명제는 창조 자체에 관한 것으로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서의 창조, 무로부터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 의지 작용으로서의 창조를 설명한다. 넷째에서 여섯째에 이르는 세 가지 명제들은 더욱 집중적으로 고찰되는데 여기에서 멜랑흐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창조의 논리적 귀결인 섭리로 나타난다. 넷째 명제에서는 이신론이 부인되고 배격될 뿐 아니라 보존 또는 유지 (preservation), 동시 발생 (concurrency)의 개념들이 등장한다. 보존은 하나님의 일반적 활동 (actio Dei generalis)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항목, 즉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과 연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창조를 이신칭의 차원에서 논의했던 차원을 벗어나서 더욱 근원적인 차원에서 창조가 성부 하나님의 행위이며 그의 보존하시는 행위를 낳는다는 사실을 멜랑흐톤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섯째 명제에서 그는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마니교도들이 인정하는 자연적 필연성을 반박하고 창조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유를 전적으로 재확인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필연성의 부당함이란 하나님을 사실상 제 2의 원인으로 제한하는 발상에 대한 반박을 통해서 더욱 구체화된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자연에 갇히시거나 묶이시지 않으신다. 그는 전적으로 자유로운 분이시며 그의 능력은 인간과 천사의 그것을 전적으로 초월하는 초월적 능력에 기초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를 변경시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그가 이러한 자연 질서에 매이거나 묶여 계심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이런 질서를 초월하는 자유를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설명함에 있어서 멜랑흐톤은 철학적 애매모호함 또는 사변에 빠져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유로 인해 자연의 질서가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 활용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자연에 관한 많은 기적들이 자연질서의 변경이나 파괴가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초월적 자유를 입증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여기에 나타난 멜랑흐톤의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에 관한 이해는 스토아학파의 견해를 전적으로 배격하고 하나님은 모든 존재들 가운데 가장 자유로운 존재로 간주되었다.³²⁾

마지막 여섯째 명제에서 멜랑흐톤은 자신이 초판에서 다루었던 칭의라는 주제의 근원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의의 질서 (ordo iustitiae)'라는 맥락에서 창조의 의미를 설명한다. "하나님의 의의 질서는 태양, 달, 땅과 물의 모든 자연적인 것들의 피조된 질서보다 훨씬 더 높고 확실하다."³³⁾ 멜랑흐톤은 이 명제를 해설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자신의 진노를 거두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이를 처벌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자신의 엄격한 의의 질서의 경감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 그리고 이는 피조세계의 질서를 잠시 멈추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로 간주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칭의는 인간의 능력이나 선행으로 결코 획득될 수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던 자에게 그리스도로 인해 위로와 기쁨이 주어지게 된다고 멜랑흐톤은 밝힌다.³⁴⁾

2) 삼위일체론과 창조

멜랑흐톤은 <신학총론> 초판에서 "신성의 신비를 탐구하기 보다는 경배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³⁵⁾ 이러한 그의 주장은 일종의 반어적 (apophatic) 어법으로 간주될

31) Ibid., 129-33.

32) Melancthon, *Melancthons Werke*, II/1, 215-19, 222; *Loci praecipui theologici* (1559). Schreiner, *The Theater of His Glory*, 119, 158.

33) 멜란히톤, 『신학총론 (1555)』, 133.

34) Ibid., 311.

수 있는데 이는 중세 스콜라주의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³⁶⁾ 스콜라주의의 사변에 함몰되기 보다다는 성경의 분명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그의 종교개혁 정신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관심은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성적으로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르침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의 유익을 아는 것이다 (hoc est Christum cognoscere beneficia eius cognoscere).”라는 유명한 주장을 남길 수 있었다.³⁷⁾ 그리스도의 유익은 은혜와 칭의로 집약될 수 있는데 죄에 대한 용서와 율법이 명시하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는 유익을 뜻한다.³⁸⁾

이런 이유에서 멜랑흐톤은 반삼위일체론에 대한 논박으로서 안디옥회의 (Synodes of Antioch, 264-269)에서 사모사타의 바울 (Paul of Samosata)을 정죄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고 밝힌다.³⁹⁾ 사모사타의 바울은 로고스를 플라톤의 이데아로 간주했던 인물로서 멜랑흐톤은 나중에 반삼위일체론자 세르베투스(Servetus)와 그를 동일시했다.⁴⁰⁾ 성자는 플라톤의 주장처럼 영원히 존재하는 이데아가 아니라 성부에 의해서 출생된 신성을 지닌 하나님 자신이다. <신학총론>을 제외한 여러 곳에서 멜랑흐톤은 성자의 출생 (generation)과 성령의 발출 (procession)이라는 용어의 선택이 어떤 의미에서 정당한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⁴¹⁾ 이 설명은 주로 어거스틴 (Augustine)의 사고와 일치하는 것인데 이는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인간에게는 사고와 의지라는 두 가지 기능이 존재하는데 사고에 의해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의지 작용에 의해서 그가 실제로 움직이게 된다. 성자는 성부의 이미지로서 그의 사고에 의해서 출생된다. 성부와 성자는 서로를 쳐다보는 가운데 사랑하는 의지가 작용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호적 사랑을 통해서 성령이 발출하게 된다.⁴²⁾

여기에서는 <신학총론> 최종판을 중심으로 창조와 관련된 멜랑흐톤의 삼위일체론적 견해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삼위가 동시에 하나이신 신적 존재로서 함께 창조하시는 분이심이 지속적으로 인정되고 고백된다.⁴³⁾ 또한 성부와 성자, 성령 모두가 창조자로서 언급되는데 이를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성부에 관해서 “이 영원하신 전능하신 아버지는 ... 당신 자신의 자유의지로 무로부터 하늘과 땅, 천사들과 사람들 등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고 유지하셨다.”고 증거함으로서 그의 창조자되심이 인정된다. 또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서 다음과 같이 그는 창조자로 표

35) Melanchthon, *Loci Communes 1521*, 18-19.

36) H. Ashley Hall, *Philip Melanchthon and the Cappadocians: A Reception of Greek Patristic Sources in the Sixteenth Century* (Göttingen: V & R, 2014), 129-30.

37) Melanchthon, *Loci Communes 1521*, 22-23.

38) Ibid., 24-25. Rolf Schäfer, *Christologie und Sittlichkeit in Melachthons frühen Loci* (Tübingen: J. C. B. Mohr, 1961), 59f.

39) Melanchthon, *Loci Communes 1521*, 140-41.

40) Meijering, *Melanchthon and Patristic Thought*, 80. 메이어링은 터툴리안 (Tertullian)이 사모사타의 바울과 마찬가지로 로고스를 플라톤적 이데아로 혼동함으로써 사실상 그의 선재성 (pre-existence)을 부인했다고 주장한다. 멜랑흐톤은 이에 근거해서 세르베투스가 자신의 반삼위일체론적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터툴리안에 호소했다고 받아들였다.

41) Ibid., 116, note 40을 참고할 것.

42) CR 15, 348f (*Enarratio in Evangelium Joannis*); Meijering, *Melanchthon and Patristic Thought*, 116-17. <신학총론> 최종판에서 “출생은 인식 능력 (nasci est a potentia intelligente), 발출과 사랑의 불꽃은 의지에서 각각 비롯된 것 (procedere, amor agitatio est a volutate)”으로 묘사된다. 멜란히톤, 『신학총론 (1555)』, 114.

43) 멜란히톤, 『신학총론 (1555)』, 83, 86, 95, 96, 126, 128.

현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이시며, 하늘과 땅과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자이시니이다.”⁴⁴⁾ 그렇다면 성부가 어떤 맥락에서 창조자로 파악되었는가? 쉬나이더 (John R. Schneider)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의 역할이 일종의 웅변가 또는 언설자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⁴⁵⁾ 그렇다면, 말씀의 흔적으로서 하나님의 인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찍혀져 있는 셈이다.

둘째, 멜랑흐톤은 성자가 피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 영원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유세비우스 (Eusebius)가 전해주었던 신가이사라의 그레고리 (Gregory of Neo-Caesarea)의 다음과 같은 신앙고백을 인용하면서 증거한다: “또한 한 분 주님이 계시니, 그는 유일하시고 아버지의 형상이시오,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이 창조된 말씀이시오, 참으로 영원하신 아버지의 참으로 영원하신 아들이시다.”⁴⁶⁾ 멜랑흐톤은 성자의 창조 행위를 통해서 부여된 피조세계의 질서를 요 1:1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든 피조물들의 아름답고 놀라운 질서가 창조에 의해서 그를 통해서 주어졌기에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였다.”⁴⁷⁾ 성자가 ‘말씀’으로 표현된 이유는 아버지께서 그를 통하여 피조물의 창조를 선언하도록 하시고 그에 의해서 창조가 수행되었기 때문이다.⁴⁸⁾ 이 사실을 통해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선포의 직분이 부여하신 것을 파악될 수 있다고 특별히 강조된다.⁴⁹⁾ 잠 8:29-31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지혜가 창조자 (workman)가 되어 성부가 명하신 선포의 직분을 붙드시고 그 안에서 기쁘게 그리고 능력 안에서 사역을 수행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신적 지혜가 “우리네 불쌍한 사람들과 (이렇게까지) 친밀하고 사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가!”라는 감탄의 표현이 사용된다.⁵⁰⁾ 이를 통해서 성자가 하나님의 지혜로서 세상을 말씀을 통해 창조하신 선포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던 멜랑흐톤의 간절한 호소가 느껴진다. 이는 멜랑흐톤이 창조에 관한 삼위일체론적 진리, 즉 교리를 단순히 묘사하고 설명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와 닿도록 하려는 변증법적이며 수사학적 방법들이 동원된 것이다. 그가 교리의 서술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이끄는 일에 모든 관심을 기울였던 인문주의자이였음에 대한 방증에 해당된다고 평가될 수 있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말씀으로서 창조의 안식을 이루신 분으로 표현된다.⁵¹⁾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제 7일에 자신의 창조 사역을 완전히 중단하시고 쉬셨다. 더 이상의 피조물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안식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쉼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멈추셨던 것이다. 또한 이 안식 안에서 하나님 자신도 쉬시고,

44) Ibid., 124.

45) John R. Schneider, “The Hermeneutics of Commentary: Origins of Melancthon’s Integration of Dialectic into Rhetoric,” in Timothy J. Wengert & M. Patrick Graham (eds.), *Philip Melancthon (1497-1560) and the Commentary*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44.

46) 멜란히톤, 『신학총론 (1555)』, 110. *Ante-Nicene Fathers*, A. Roberts and J. Donaldson (eds.) (New York, 1890), VI, *Gregory Thaumaturgus, A Declaration of Faith*. <이단에 대항하여 (Against Heresies)>라는 이레니우스 (Irenaeus)의 작품에서도 다음과 같이 인용된다: “성자는 처음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 지어졌다.” Ibid., I. *Irenaeus Against Heresies*, III, 18.

47) Ibid., 99.

48) Ibid., 93-94.

49) 하나님의 아들의 선포의 직분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유지되었다. Ibid., 297.

50) Ibid., 93.

51) Ibid., 217.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지혜와 의와 기쁨을 주신다. 이런 이유에서 안식에 있어서 성자는 '창조의 면류관'⁵²⁾으로 불리워진다. 이 안식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자들의 마음속에 거하실 때 시작되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지혜와 의를 주시는 가운데 완성을 향해 나아가며,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게 될 때 완성된다. 따라서 이 안식은 성자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이며 창조의 궁극적 완성으로서 재창조, 즉 신천신지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⁵³⁾ 영생의 획득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안식은 성자의 구원 사역에 의해 완성된다.

셋째, 성령의 창조자 되심은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하고 단지 교부들의 입을 빌어서 증거되었다. 멜랑흐톤은 성령이 창조자라는 증거를 바실레에 의해 언급된 팔레스타인의 유세비우스(Eusebius of Palestine)의 다음과 같은 글을 빌어 고백한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성령을 불러 아뢴다.”⁵⁴⁾ 이렇게 간접적 방식으로 성령의 창조자 되심을 고백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서 성령이 “본질적으로 아버지 안에 있는 아들에 대한, 아들 안에 있는 아버지에게 대한, 화염과도 같은 사랑과 기쁨”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사랑을 일으키시며, 우리 안에 사랑의 힘을 주시기 위한 분”이라고 멜랑흐톤은 고백한다.⁵⁵⁾ 성령에 대한 이런 표현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성령의 발출을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성령의 창조자 되심에 대한 멜랑흐톤의 증거는 성부와 성자의 창조자 되심에 대한 증거보다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성령의 창조자 되심에 대한 강조보다 그가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주장을 더욱 직접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으로서 그의 인문주의적 정신을 들 수 있다. 그는 이러한 인문주의적 정신을 활용하여 자신의 성령해석을 교리적 서술의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을 용인하지 아니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교리의 실천적 차원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맥락에서 창조자 되시는 성령의 사역에 관한 증거들을 설명한 후, 멜랑흐톤은 이 사역을 더욱 자세히 상고해야 할 구체적이며 체험적인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했던 것이다: 1) 성령의 신적 인격성을 깨달을 통해 신앙을 강화시키는 것, 2)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을 성찰하는 것, 3) 하나님께서 성령이라는 이 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통해 위로를 붙들기 위한 것.⁵⁶⁾ 멜랑흐톤의 이러한 집필방식은 <신학총론> 최종판이 신학적 지식과 더불어 경건을 강조하는 탁월한 신학입문서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III. 멜랑흐톤의 자연 이해

자연에 대한 멜랑흐톤의 이해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자연의 외적 현상만을 고찰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⁵⁷⁾ 이런 이유에서 칼빈과 유사

52) Ibid.

53) Ibid., 488.

54) Ibid., 111.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H. Wace and P. Schaff (eds.) (Oxford and New York, 1895), VII. *St. Basil: Letters and Selected Works, On the Spirit*, 제 29 장.

55) Ibid., 90.

56) Ibid., 106-107.

57) Sachiko Kusukawa, *The Transformation of Natural Philosophy: The Case of Philip Melanctho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5), 158. 자연을 원인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멜랑흐톤의 사고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었는데 이는 자연에 관한 그의 대표적 작품 <자연적 가르침의 시작에 대하여 (De initia doctrinae physicae)>의 전체적 구조에 잘 반영되

하게 자연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를 행사하시는 극장에 비유되었던 것이다.⁵⁸⁾ 가시적 현상에만 국한된 인간의 이성, 즉 어리석은 것으로 자연의 원인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⁵⁹⁾ 그러므로 이 원인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힌다. 이런 이유에서 자연에 대한 그의 정의는 창조자와 관련될 뿐 아니라 그 자체로서 신적 가르침을 내포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멜랑흐톤에게 자연은 우리가 경험하는 우주의 외연적 모습이 아니라 물리적 가르침 (physical teaching)에 의해 정의된다. 이 가르침은 하늘에 관한 창조자의 통치와 인간의 본성에 나타난 창조자의 형상으로 표현되는 창조자에 대한 지식을 가리킨다.⁶⁰⁾ 여기에서 그의 자연 이해를 질서, 유용성 그리고 섭리로 나누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질서

멜랑흐톤의 자연 이해에 있어서 첫 번째 키워드는 질서(order)인데 이는 자연에 관한 전 포괄적 (all-inclusive)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피조세계에 나타난 질서는 하나님과 창조, 그리고 그의 섭리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다. 만물의 질서는 영원 전부터 존재해왔던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건축자인 지성을 지닌 존재, 즉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다.⁶¹⁾ 자연의 놀라운 질서, 즉 운동의 법칙, 식물과 동물, 그리고 영혼을 지닌 존재들의 생성과 지속에 관한 법칙은 무로부터 고안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으며 이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지니신 창조주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최종적 원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물의 질서가 계획되었고 확립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다.⁶²⁾ 멜랑흐톤은 이러한 자연의 질서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덕 (virtue)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곳에서 그는 자연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주목하는 것은 경건하고 유용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⁶³⁾

멜랑흐톤은 <물리적 가르침의 시작에 대해서>라는 자신의 대표작을 이런 질서의 원리에 따라서 작성하였다. <신학총론>에서 Loci 방법론이 활용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에 관한 그의 가르침에서도 이 방법론이 채택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우주에 실존하는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해진 질서를 따라 고찰된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그의 섭리, 우주, 행성, 요소 (elements), 원인, 기상학, 식물과 광물, 그리고 최종적 인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들이 총망라된다.⁶⁴⁾ 우주와 행성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 이들의 운동에 질서정연함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다고 간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연에 대한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이해가 멜랑흐톤의 마음속에 자리잡았던 것이

어 있다. 자연철학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세 작품, <천체에 관하여 (De caelo)>, <물리학 (Physica)>, 그리고 <생성과 변형에 대하여 (De generatione et corruptione)> 에 나타난 주제들이 <자연적 가르침의 시작에 대하여>에서도 다루어진다.

58) Kusakawa, *The Transformation of Natural Philosophy*, 150. 자연을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으로 이해했던 칼빈의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Schreiner, *The Theater of His Glory* (각주 29).

59) CR 13, 200 (*De initia doctrinae physicae*). 이는 1549년에 이르러 자연철학에 관한 교과서로 의도된 *De initia doctrinae physicae*로 집필되었다. 이 작품은 고대 천문학자 프톨로미 (Ptolemy)에 관한 멜랑흐톤의 강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Kusakawa, *The Transformation of Natural Philosophy*, 145.

60) CR 10, 539 (*De initiis doctrinae physicae*). 이 작품은 1533년에 멜랑흐톤이 작성한 자연적 가르침에 관한 시이다.

61) CR 6, 125 (*Testimony for Ioannes Prunsterer*, May 1546).

62) CR 13, 411.

63) Maurer, *Der junge Melanchthon*, 153.

64) Kusakawa, *The Transformation of Natural Philosophy*, 151.

며 이에 근거해서 <물리적 가르침의 시작에 대해서>가 집필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새로운 자연철학에 근거한 대학의 학문의 새로운 범주를 이끌어 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2) 유용성

하나님이 자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로써 인간의 소용을 들 수 있다. 세상이 인간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창세기>가 증거하는 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사안 중의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자연 세계는 인간의 거주지로 지음을 받은 것이다.⁶⁵⁾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자연이 인간의 소용을 위해서 지음 받은 것인가? 멜랑흐톤은 이에 대해서 자연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의도된 결과물을 도출함으로써 인간의 소용을 만족시킨다고 보았다.⁶⁶⁾ 나무가 시절을 좇아서 열매를 맺는 것은 인간의 식욕을 충족시킴으로써 그에게 만족감과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자연을 이해함에 있어서 멜랑히톤에게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유용성 (utility)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도구로 삼아 인간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그에게 만족과 즐거움을 제공하신다. 이 점에 있어서 자연은 인간에게 유용성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도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인간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인간은 아무런 목적 없이 지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더 크고 높은 목적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의해 지음 받은 피조물임을 확인하는 도구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께 즐거움과 만족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된다.

3) 섭리

멜랑흐톤은 섭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시는 지식과 그의 모든 피조물을 보호하시는 통치로 정의한다.⁶⁷⁾ 섭리에 관한 그의 이해에는 눈이 천문학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플라톤의 주장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⁶⁸⁾ 멜랑흐톤은 이를 활용하여 눈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는데 안내자로서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계속해서 천문학을 경멸하는 자는 고의적 ‘무신론자’에 해당한다고 밝힌다.⁶⁹⁾ 쿠수카와 (Sachiko Kusukawa)는 16세기 맥락에서 무신론자 (atheoi)는 현대적 의미에서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오히려 불경건함에 빠져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멜랑흐톤의 주장을 재해석한다. 그의 의도는 천문학을 경멸하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 즉 섭리를 부인하는 자들을 가리킨다.⁷⁰⁾ 그가 천문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장려했던 이유는 천문학이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과 그의 통치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 견해는 마우러어 (Wilhelm Maurer)가 주장한 바와 같이 그의 자연신학과 성경신학이 여전히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⁷¹⁾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멜랑흐톤의 종교개혁적 신학이 여전히 중세 스콜라주의의 자연신학과 일치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는 사실상 인문주의자에 지나지 않으며 더 이상 종교개혁자로 간주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마우러어

65) CR 13, 214.

66) CR 13, 320.

67) CR 13, 203.

68) Plato, *Timaeus*, 47a, *Republic* VII, 530d.

69) CR 2, 531f (*Letter to Grynaeus*, 1531).

70) Kusukawa, *The Transformation of Natural Philosophy*, 127-29.

71) Maurer, *Der junge Melanchthon*, 153.

의 주장은 멜랑흐톤의 섭리 이해에 나타난 루터란적 특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율법과 복음을 날카롭게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고는 루터란적 사고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서 멜랑흐톤의 섭리이해가 사실상 율법에 국한되기 때문이다.⁷²⁾ 그의 섭리 이해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영역에 머무르는데 이는 <신학총론>에서 그가 제기했던 죄악, 율법, 복음의 세 가지 Loci에 의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자연신학과 복음을 제공하는 성경신학이 완전히 이원화되는 문제가 멜랑흐톤의 섭리 이해에 내재되어 있음이 분명한 사실이다.

IV. 맺는 말

멜랑흐톤의 창조에 대한 고찰에 앞서 본 논문은 그가 어떤 인물인가를 16세기 맥락에서 먼저 고찰하였다. 인문주의자이었던 그는 1519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헬라어 교수로 사역하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에 가담했으며 그를 통해 교회의 교사, 즉 루터교회의 신학자가 되었다. 인문주의자와 종교개혁자, 이 두 단어가 인간 멜랑흐톤의 삶을 이해하는 두 가지 키워드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그의 대표적 작품인 <신학총론>을 통해서 살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전기적 고찰을 토대로 삼고 창조에 대한 멜랑흐톤의 이해를, 먼저 <신학총론>을 중심으로, 그리고 삼위일체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전자의 경우, 그의 창조 이해가 전통적 교리, 특히 교부들의 가르침에 근거를 둔 건전한 종교개혁적 신학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후자의 경우, 멜랑흐톤의 창조론을 삼위 하나님의 공동적 사역과 개별적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여기에서는 인문주의자로서 교리에 대한 단순한 서술에 머무르는 차원을 탈피하여 기도문과 더불어 수사학과 변증법적 차원을 동원하여 독자들에게 신비한 삼위일체론에 대한 신앙을 독려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이는 모든 신학이 궁극적으로 유익을 제공하는 실천적 학문이어야 한다는 멜랑흐톤의 강력한 신념이 돋보인다고 평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의 자연 이해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이라는 개념이 활용되었지만, 그는 이를 수정 보완시켜 이 원인이 창조자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자연을 질서, 유용성, 그리고 섭리의 관점에서 고찰했던 멜랑흐톤은 이 개념에 근거해서 비텐베르크 대학을 위시한 독일 대학들의 학문 개념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72) Kusakawa, *The Transformation of Natural Philosophy*, 167.